



[2024. 1. 5. ~ 1. 10.]
아 략 에 미 리 트

= 제9대 전반기 충북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신 승 규 의장

목 차

I . 연수개요	1
1. 출장개요	1
2. 출장일정	2
3. 출장결과보고서	3
II . 출장국가 기본현황	6
III . 기관방문	10
1.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10
2. 두바이 코트라 무역관	17
3. 마스다르 시티	25
4. 현지시찰 방문	30

제9대 전반기(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 ▶ 국외 선진 지역의 관광개발과 도시재생, 마케팅 전략과 재생에너지 스마트 구축 사례 등에 대한 현장 견학 실시
- ▶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I | 개 요

1. 출장개요

- 기 간 : 2024. 1. 5. ~ 1. 10.(4박 6일)
- 출장지역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 대 상 : 충북 시·군의회의장
- 참석인원 : 21명(의장 10명, 수행원 11명)
- 출 장 자 : 신송규 의장, 송연섭 주무관

▶ 출장 주요 내용

- ① 지역 관광 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 ② 중동 지역 마케팅 환경 및 전략 연구
- ③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스마트 구축 선진사례 연구

▶ 주요 방문 일정

- 공공기관 : ① 두바이 코트라(한국기관 무역관)
②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아랍 최대 도서관)
- 현지시찰 : ① 알 시프·알파히디 역사지구(전통건물의 문화시설로 도시재생)
② 수크 마디나트 주메이라(아랍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재생)
③ 알세르캉 에비뉴(창고를 전시·문화시설로 도시재생)

2. 출장 일정

월 일 (요일)	도시	주요 일정	비 고
1월 5일 (금)	인천	•인천국제공항 출발	
1월 6일 (토)	두바이	•현장시찰 ① 알시프·알파히디 역사지구 (전통건물을 문화시설로 도시재생) •기관방문 ① 【도서관 방문】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1월 7일 (일)	두바이	•현장시찰 ② 수크 마디나트 주메이라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 도시재생)	
1월 8일 (월)	두바이	•기관방문 ② 【두바이 무역관 방문】 두바이 코트라 •현장시찰 ③ 알세르칼 에비뉴 (창고를 전시·문화시설로 도시재생)	
1월 9일 (화)	두바이 아부다비	•현장시찰 ④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아부다비 대표적 박물관)	
1월 10일 (수)	두바이 인천	•두바이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3.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결과보고서 >	
제출자	신송규
<p>1. 미래 도서관의 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차세대 도서관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의 변화</p> <p>○ 일반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활용은 책을 열람하고 머무르며 책을 읽는 1차원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마련이지만 <u>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유서 깊은 두바이 크릭(creek)을 따라 이슬람 전통의 독서대 모양으로 설계된 현대식 도서관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새로운 랜드마크임.</u></p> <p>○ 아랍문명이 오랜 역사의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핵심은 결국 문자라는데 아랍에미레이츠의 지도자들은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느껴졌으며, 문화적 집단지성, 교육발전의 이정표, 연구분야 및 학계의 지속적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음.</p> <p>○ 아랍인의 이런 가치관을 반영한 듯 <u>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어 초 현대화된 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u> 어린이, 청소년, 지도, 미디어 및 예술, 비즈니스 등 9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u>최신 인공지능과, 스마트로봇, 전자 검색 시스템과 셀프서비스 부스, 증강현실 체험, 홀로그램, 자동화 서고 등 차세대 도서관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신기술을 접목하여 방문객에게 단순하지 않은 공감각적인 특별한 경험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u></p> <p>○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이 흥미롭고 친근하며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흥미유발 거리를 잘 기획. 또한 단순한 책장과 공간을 탈피하여 방문객에게 펼쳐지는 경이로운 건축양식은 계속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될 것.</p> <p>○ <u>우리 주변의 도서관의 전형적이고 투박한 도서관의 모습과 대비되는 부분이었으며, 나라의 국력이며 밑거름인 어린 학생들에게 도서관을</u></p>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도서관에 접목할 부분이 매우 많았던 새로운 경험이었음.

2. UAE와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는 두바이 코트라 무역관

-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 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2016년에는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에 \$84를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했었으며, UAE는 2021년 20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중동지역 산업과 교역의 핵심은 단연 '유가'이지만 석유고갈 시점 이후의 자국의 신성장 먹거리 산업에 주목.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1.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2.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3. 수입대체와 민간산업 전략적육성 4.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임.
- 특히나 신성장 산업에 아낌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두바이와 아부다비 이기 때문에 이 큰 파이에서 조금만 우리 충북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큰 수출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코트라를 통한 충북 농특산물 수출 활로 개척은 꼭 필요하다 생각됨.

3.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운영하는 마르다르 시티

- 마르다르 시티는 석유 이후의 시대(post-oil Era)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류가 당면해 있는 지구촌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조를 위해 석유자원 부국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건설 중인 인류 최초의 거대한 실험도시.
- 이 프로젝트는 폐기물제로,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한 재료사용과 음식 개발, 물의 재사용과 자연주의 거주환경 조성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완공되면 마르다르 시티는 상주인구 4만명 유동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계획. 이는 약182만평으로 여의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예상 공사비는 약 240억 달러로 상주인구 일인당 약 8.7억원으로 한국의 파주 운정 신도시에 비해 일인당 투자비가 12배에 이르는 만큼 엄청난 규모.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인류는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자연을 지키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란 것에 공감. 또한 전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인 만큼 대한민국도 탄소제로를 향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에 막대한 자본력으로 실험적인 도시가 세워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도시의 성공여부와 지속성을 잘 지켜보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수정하고 개선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사료됨.
-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탄소중립 정책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은 분명함. 우리 충북에서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마스다르 시티가 시도하고 있는 상상력과 구성은 높이 평가할 만 하고 우리 충북만의 특성을 살린 방향으로 재해석해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도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며, 충북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을 중심으로 마스다르 시티의 전략에 공감하고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함.

출장국가 기본현황

1 위 치



2 기본 현황

구 분	내 용	국 기
국명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연합창립일	1971.12.02.	
수도	아부다비	
인구	928만명(순수 UAE 국민은 100만명)	
면적	83,600km ² (한반도 면적의 약 37%, 전 국토의 97%가 사막)	
화폐단위	다르함(AED), 1 USD = 3.67 AED	
종족	아랍인, 외국인(주로 아시아계, 이란계)	

구 분	내 용
공용어	아랍어 / 영어, 이란어, 힌디어, 우르드어 등 통용
종교	이슬람교(96%), 기독교·힌두교(4%)
기후	고온 다습한 사막 기후
GDP	4,153억불(1인당 GDP 44,741불)

3 행정구역

-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국가이다. 이 일곱 토후국들은 아부다비 토후국, 아지만 토후국, 두바이 토후국, 푸자이라 토후국, 라스알카이마 토후국, 샤흐라 토후국, 움알쿠와인 토후국이 있다.
- 두바이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몰려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인구의 35.6%가 이 두바이에 몰려 산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아부다비는 두바이의 뒤를 이어 31.2%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몰려 살고 있다.

4 정치형태

- 헌법이 명시한 최고 행정 및 입법기관은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로 7개의 토후국의 통치자로 구성되고, 대통령 및 총리 내각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임기 5년의 국가원수로 관례적으로 아부다비 통치자가 선출되며 아랍에미리트 통합군 총사령관을 겸직한다. 연방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제청하여 연방최고회의 동의로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두바이 통치자가 선출되며 부통령 직을 겸직한다.

- 내각은 연방 총리의 제청으로 연방최고회의에서 선출하며, 법안 발의 및 연방 예산 승인, 연방정부 감독의 역할을 한다. 각 토후국 간의 권력 구조에 따라 각료가 배분된다. 아부다비가 외교, 내무, 정보 등 6명의 장관들을 선출하고 두바이와 샤르자가 각각 국방, 재정, 경제, 무역 등을 나누어 가진다. 푸자이라, 라스 알 카이마가 2개씩, 움알쿠아인이 1명을 배정받는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은 행정부의 최고 기구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으로 이루어져 현재 총 22명의 각료들이 있다. 국방장관은 부통령 겸 총리가 겸임하며, 국무를 담당하는 장관은 금융과 산업 담당, 내각 담당, 외교 담당, 연방 담당 장관들이 있다.

5 경 제

-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덕분에 50년 만에 베두인들의 부족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고 인상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 세계에서 7번째로 거대한 석유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동에서 진보적인 정책들과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지난 40년 만에 실질적인 GDP가 3배 넘게 증가할 수 있었다. 현재의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1인당 GDP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GDP보다 80%가량 더 높을 정도로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 아랍에미리트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1975년의 인구가 55만 명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현재는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 다만 이 인구 증가는 대부분 외국에서 이주해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자국민은 소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 한국과의 관계

- 1980년 6월 18일 대한민국과 수교하였다. 대한민국은 1980년 12월에 대사관을 개설하였고, 2008년 3월에 두바이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아랍에미리트는 1987년 3월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 대사관은 아부다비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2018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빈 방문하였다. 2020년 대대적으로 발발한 코로나 19 사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진단키트를 먼저 받은 국가도 아랍에미리트였다.
-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 교역규모는 수출 40억 달러, 수입 73억 달러이며 대한민국 기업은 170여개사가 진출하였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재외동포는 약 9,642명이다.

7 방문도시 기본현황

구 분	두바이	아부다비
행정구역	두바이 토후국 수도	아부다비 토후국 수도
인구	417만명	278만명
면적	3,885km ²	67,340km ² (전국토의 85%)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7개 토후국 중 두 번째 규모 - UAE 석유 매장량의 95% 차지 - 두바이는 석유 산업으로 시작, 현재는 관광, 항공, 부동산, 금융서비스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음 - 혁신적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수도이자 대통령 및 연방정부 소재지 - 1958년 유전 발견 - 총석유매장량은 900억 배럴 (전세계 1/10) 추산

1.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1) 기관 개요

창립년도	2022. 06.
관장	모하메드 아흐마드 알무르
방문목적	중동 최대의 도서관을 방문, 전문도서관과 희귀 서적, 원고, 문서 등 전시 상황 관람 및 벤치마킹

2) 연수내용

① 도서관 현황

-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막툼 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권의 책을 수집하여 지식, 문화 및 창의성의 등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6년 2월 1일 새로운 도서관 설립을 발표했다.
 - 수년 간의 공사 끝에 2022년 6월 16일 본인의 이름을 따서 개관했다.
-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펼쳐놓은 듯한 모양새로 7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중동-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메나(Mena)' 지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으로 약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54,000㎡ 면적이다.
 -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하며, 개관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월,화,수,목,토), 금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개관한다.
 -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원형 극장, 언어 정원과 2개 층에 걸쳐 펼쳐지는 카페가 있다.

-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 정기간행물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지도 및 지도책 도서관, 미디어와 예술 도서관, 특별컬렉션, 비즈니스 도서관, 에미레이트 도서관으로 서로 다른 주제의 9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랍어 및 외국어로 된 백만 권 이상의 인쇄 및 디지털 자료와 6백만 개의 연구 논문이 있으며, 73,000개의 악보, 75,000개의 비디오자료, 약 13,000개의 기사, 5,000개 이상의 역사적 저널이 있으며, 전 세계의 약 35,000개의 인쇄 및 디지털 신문과 500개의 희귀 수집품을 소장·제공한다.
 - 또한 17,000권의 어린이 도서를 소장하는 어린이실은 다채로운 장난감과 미끄럼틀까지 갖춰져 있으며,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점자 도서 전용 서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감각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건물 7층에는 13세기의 희귀 서적, 원고와 문서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의 보물(Treasures of the Library)' 전시를 하고 있다.
 - 특히, 문학과 사상가들의 초판본*을 전시하여 희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대표적인 전시 초판본은 셰익스피어(희극, 역사극, 비극, 1632), 세르반테스(돈키호테, 1780), 몽테뉴(수상록, 1580),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 1859), 빅토르위고(레미제라블, 1862), 스탕달(적과혹, 1831), 톨스토이(전쟁과 평화, 1868), 도스토예프스키(죄와 벌, 1867), 찰스다윈(종의기원, 1859), 프로이트(꿈의해석, 1900), 프랜시스 베이컨(신기관, 1620), 마리 퀴리(방사능론, 1910), 몽테스키외(법의정신, 1784), 칸트(순수이성비판, 1781), 장자크루소(사회계약론, 1762), 토머스 홉스(리바이어던, 1651) 등이 있다.

② 차세대 도서관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의 변화

-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및 홀로그램과 같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 1층 대형 스크린에서 거대한 우주 탐험이나 깊은 바다 속 세상을 통한 증강현실 체험, 1층 리셉션 옆 독서 키오스크의 홀로그램이 펼쳐진다.
 - 방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스마트 로봇이 있는데, 방문자를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하며 'Hey Google' 명령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있으며, 셀프 체크아웃 기기는 전체 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넣기만 하면 저절로 반납처리가 된다.
- 지하의 자동화 서고는 90만권이 넘는 인쇄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요청한 책을 찾아 전달하는 데 최대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로봇이 책장 사이에서 도서를 찾아 선반을 회수하여 제어 센터로 가져오고 카운터 상단의 조명이 요청한 책을 비추면 도서관 직원이 책을 꺼내어 모노레일 위 트레인에 도서를 넣어 정보센터로 배달한다.

③ 도서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지붕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이 건물 에너지 요구량의 10%를 제공하고 있으며, 천장의 창문은 자연 채광을 받아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상당히 줄여주고 있다.
- 외부 파사드는 내부를 단열하고 환경을 조절하며, 물 소비를 50% 줄이도록 설계되어 친환경적인 도서관으로 에어컨에서 재활용된 물이 녹지 공간에 인공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4 한국와의 관계

- 2022년 1월 16일, 김정숙 여사는 '한·UAE 지식 문화교류식'에 참석해 훈민정음해례본 등 한국 도서 250여권을 전달했다.
 - 훈민정음해례본(영인본) 외에 '더 스토리 오브 한복(The Story of Hanbok)', '매거진 F No.12:김치', '한눈에 보는 한지' 등 한국 문화관련 도서가 포함됐다. 소설로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 아랍어판을 기증했다.
- 2022년 1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 양국 도서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UAE 양국 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 2023년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MBR) 도서관과 양국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 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 지난 1월 UAE 국민 방문을 계기로 한·UAE 양국의 콘텐츠 산업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MBR 도서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 추후 지속적으로 한·UAE 공동 행사를 열고 중동 내 한류 확산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기능을 넘어서, 문화와 지식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적인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와 지식의 보고이자 전파의 중심지이다. 우리도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문화의 중요성과 지식의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AI, 증강현실 체험, 홀로그램, 자동화 서고 등 차세대 도서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이 재미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흥미거리가 많았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열람실 위주의 전통적인 공간으로 짜여져 있다.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가고 싶은 도서관, 재미있는 도서관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을 설계할 때 더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아랍에미리트는 도서관 건물을 지을 때도 친환경적인 미관과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시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국가정책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북 시군 차원에서조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은 산업, 교통, 교육,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녹아들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전파 및 확산해야 할 것이다.
- 일반 도서관, 정기간행물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지도 및 지도책 도서관, 미디어와 예술 도서관, 특별컬렉션, 비즈니스 도서관,

에미레이트 도서관으로 서로 다른 주제의 9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주제별로 더 섬세한 분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책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에미레이트 도서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대부분 국가의 역사는 알아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을 소개하는 책으로 구성된 도서관이 있으면, 지역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지역을 알아야 관심과 자긍심도 생긴다. 지역 도서관에 지역을 소개하는 별도의 섹션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전 세계의 고서 등을 수집, 전시 하는 등 세계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 도서관의 기능적인 면에서 단순히 책을 읽은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아쉬운 면이 있다. 운영시간이 6시로 제한을 두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이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관련 사진



2. 두바이 코트라 무역관

1) 기관 개요

창립년도	1976년 UAE 사무소 개설
회의 참석자	양기모 본부장, 장진영 부관장, 김동민 팀장
방문목적	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UAE 진출 지원
기업 비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
기업 정보	-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 -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 -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2) 연수내용

① 석유, 가스 의존도 높은 경제발전

- UAE는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매장량의 9할 이상과 주요시설은 아부다비에 집중되어 있고, 국영 석유회사인 ADNOC과 자회사들이 글로벌 기업과 공조해 전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023.4.2.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에 UAE가 동참하여 5월부터 연말까지 일 14만4천 배럴의 감산을 결정하였고 연간 생산량은 예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OPEC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2021년 평균 2,718tb/d, 2022년 평균3,064tb/d을 생산했으며 2023.2월에는 3,041tb/d를 생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제조업 등 산업 확장하여 포스트오일에 대한 산업 다각화 노력

- 석유화학, 알루미늄 및 철강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시작한 UAE 제조업은 점차 식품가공, 자동차부품, 기계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 UAE 정부는 2021.3월 오퍼레이션 3,000억(Operation 300bn)프로그램 발표,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난 자국의 산업구조 개선 추진, 제조업 육성 노력하고 있다.
 - 해당 전략을 통해 현 1,330억 디르함(362억 달러) 수준의 제조업 규모를 2031년 3,000억 디르함(817억 달러)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이러한 육성 노력에 따라 2022년 GDP 내 제조업 비중은 10.5%까지 늘어나고 있다.
- 2022년 말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Make it Emirates를 출범하고 관련분야 자금과 컨설팅 지원, 특히 연 40억 달러 상당의 UAE 첨단기술제품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국가산업역량강화센터(National Industrial Empowerment Centres)설립과 1,000여 개 기술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아부다비 제조업 관련 산업면허 신규 발급 수는 136건에 달한다.
- 2117년 화성 거주를 목표로 달 및 화성탐사 우주산업 투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UAE 우주청이 30억 디르함(약 8억 달러) 상당의 우주산업 기금, 경제구역프로그램(Masdar)을 조성, 향후 우주 분야 개발에 투입 예정이다.

③ 국가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관광 산업

- 산업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관광 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UAE를 방문한 관광객은 2,800만 명 수준으로 두바이엑스포와 카타르 월드컵 수혜 및 엔데믹 특수를 맞았다.

- 미래 주요 산업으로써 관광 산업에 대한 UAE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투자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UAE Tourism Strategy 2031 출범으로 관광 부문 투자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착비자 발급 조건 완화로 관광객 유치에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글로벌 기업 진출 가속화와 투자 동향

- 2021년 UAE는 20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17년 104억달러 대비 두 배가량 상승한 수치이다.
- UAE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FDI를 유인하고 있는 주요 분야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서비스업, 제조업 등이며,
- 주요 투자 국가로는 스위스, 영국, 인도,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로 파악된다.

< UAE 연도별 FDI 유입현황 >

단위:US\$백만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FDI 유입	10,354	10,385	17,875	19,884	20,667

<출처 : UNCTAD>

- 투자자들은 UAE를 투자국가로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비즈니스 친화적 정부 정책, 안정된 정치·경제 시스템, 잘 갖춰진 산업 인프라와 물류시설을 꼽고 있다.
-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에서 발표한 2022 커니 외국인 직접 투자 신뢰 지수(Kearney FDI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UAE는 2022년외국인 직접투자(FDI) 신뢰 지수에서 14위를 차지한 바 있다.

○ 각 에미리트의 주요 산업이 상이하여 진출 분야에 따라 입지 선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 두바이는 유통·물류업, 관광업 및 도소매업, 아부다비는 석유·가스 플랜트 진출에 유리하며, 기타 샤르자와 라스 알 카이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최근 신산업 유치를 위해 두바이는 스타트업, IT 등 혁신산업에, 아부다비는 제조 및 관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5 한국과의 관계

○ 2023.1.15. 윤석열 대통령이 셰이크 모하메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 회담을 통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4대 핵심 협력 분야로 ▲ 에너지·재생에너지·수소경제, ▲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 경제와 투자, ▲ 국방·방산기술 등 설정, 특히 UAE는 국부펀드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분야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 2022년 對UAE 수출은 39.7억달러이며,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호식품, 전력용기기, 무기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對UAE 투자금액은 2022년 기준, 2,075만 달러로 전년대비 8.1% 감소하였다.

< 한국의 대 UAE 투자현황 >

단위:US\$천, 건, 개사

구 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22,587	20,749
신고건수	66	68
신규법인수	10	15

출처: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기준 UAE에 투자한 우리 기업중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진출형태는 지사, 연락사무소 순으로 많다.

< 업종/형태별 UAE 진출기업수 >

업종	건설	금융	도매	보건	서비스	에치	운수	정보통신	제조	공공	총계
기업수	31	10	16	3	33	9	12	4	55	5	178
진출형태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기업수	6		25		28		88	31			

출처:두바이무역관

3) 질의응답

○ 신송규 의장 : 두바이 시내 쪽은 지중화 사업이 돼있는데, 사막쪽은 돼있지 않더라. 왜 이런 건지?

○ 양기모 본부장 : 사막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 지하로 들어갈수록 단가가 높기에 지하매설로 가기에는 비용부담이 큼. 따라서, 이거는 우리에게 큰시장임. 대한전선, LS전선, 효성이라든가. 우리는 경쟁력있는 고압케이블을 가지고 지하매설 쪽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두바이가 전력이 부족한 곳은 아니고 굉장히 풍부한 곳이기에 정전이 된 적은 없다. 전력은 풍부한 시장이다.

○ 신송규 의장 : 사막 같은 곳은 땅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 양기모 본부장 : 왕자들이 많다보니까 왕이 땅을 배분하기에 고압케이블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투는 현상은 없는 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송유관을 연결해라 이러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편이다.

○ 신송규 의장 : 아부다비나 두바이 태양광은 좀 어떤지?

○ 양기모 본부장 : 여기가 기름 팔고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COP27·28

기후변화 전세계 최대회의 같은 거를 개최하는 건 상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석유를 팔아서 탄소의 원흉이 될 수 없다라는. 석유를 팔아서 평생 먹고 살 수도 없기에 태양광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진정성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린 에너지로 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하기에도 최적지이다. 한국 일조량의 3.5배 정도다.

○ 신송규 의장 : 두바이에 대한민국 농수산물은 얼마나 들어오는가?

○ 장진영 부관장 : 여기가 농수산물이 재배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통관절차가 어렵지 않다. 한국 딸기나 샤인머스켓 같은 게 여기서 맛이 있다고 반응이 좋고 관심이 많다. 그래서 동네 마트를 가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여기만큼 다국적 식재료를 구하기 쉬운 곳이 없는 것 같다. 이쪽은 농산물 수출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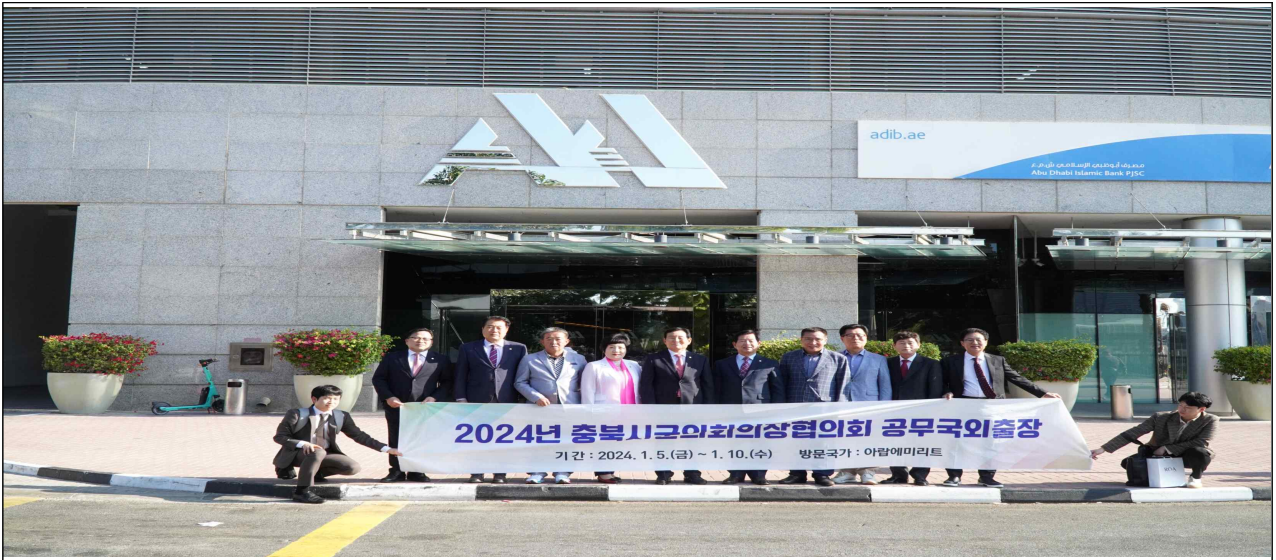
○ UAE는 2021년 207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비즈니스 친화적 정부정책과 안정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투자 친화적인 국가이다. 또한 두바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북 기업들도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의 UAE 투자 업종을 보면, 제조업은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투자금액이 제일 크며, 진출기업 수도 55개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충북도는 14,000여 개의 제조업이 있다. 기업인들의 중동진출을 위한 지역별 여건과 지원시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충북 시군의 각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중동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각 지역의 산업 구조, 인프라, 인력,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중동시장에 적합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충북 시군이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의 현지화 지원,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중동 시장 조사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주도할 핵심사업인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국가산업단지가 충북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의 경우 탄소제로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마스다르시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과 혁신을 중시하는 도시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북의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산업은 마스다르 시티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출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지원, 시장 개척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관련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 충북 지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고려하여 기업의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해야 한다. 현지 시장 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통해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 및 브랜드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홍보 전략도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최적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두바이와 같은 국제적인 시장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두바이에 맞는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5) 관련 사진



3. 마스다르 시티

1) 기관개요

창립년도	2006년
방문목적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의 사례 벤치마킹
기업 비전	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 분야에서 지식과 협업의 세계적 창조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

2) 연수내용

① 아부다비의 친환경적인 계획도시, 마스다르 시티

- 마스다르 시티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계획도시로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 UAE가 2006년 건설을 천명한 탄소제로 도시로,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투자회사가 아부다비 남동쪽 17km 사막 지역에 면적 6km², 인구 4만명 규모로 계획했다.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차만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0)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이다.
- 2008년 2월 마스다르 시티에서 건설이 시작되어 2010년 10월에 도시의 첫 6개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하였고 최종 완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② 탄소, 자동차, 쓰레기 없는 도시, 마스다르 시티

- 청정 기술 기업을 위한 허브로 설계되었으며, 도시전체를 '석유 이후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온실가스과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 '세계 최초 탄소 제로도시'를 지향하면서 태양열, 지열,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2009년 완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발전소 솔라타워는 전력을 담당하는데 50℃에 육박하는 뜨거운 햇볕으로 물을 끓여 증기를 생산하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연간 1만 7,500MWh의 전기를 생산한다.
 - 고온 증기를 이용한 온수 공급도 가능하며 발전소를 통해서만 3,500대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앤 것과 같은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발휘한다. 마스다르 시티 빌딩들은 옥상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소비전력 일부를 직접 충당하고 있으며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도 태양전지로 작동한다.
- 마스다르시티는 또한 도시쓰레기 완전 제로를 목표로 하여, 생물학적 폐기물은 양질의 토양과 비료 생산에 이용하고, 그 일부는 쓰레기 조각을 통한 추가적 에너지 자원 재생에 사용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12%나 감축하고 있다. 기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산업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재생산 라인에 순환투입된다. 도시 전체의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외벽 목재는 야자나무(palmwood)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코코넛 야자나무를 강목(hardwood)을 대용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주택의 주출입구, 차양막(screens) 및 대문 등은 현재 마스다르시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자나무를 활용하고 있다.
- 마스다르 시티는 '화석연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통을 전기화했다. 대중교통수단은 크게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PRT, Personal Rapid Transit), 오토넘(Autonom) 셔틀, 저상버스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

은 모두 순수 전기차이다. 6인승 PRT와 12인승 오토넘 셔틀은 자율주행차이다.

- PRT와 오토넘 셔틀은 최고 시속이 각각 40km, 25km로 느린 편이지만 누적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필수 교통수단이다.
- 장거리 이동은 철도가, 근거리 이동은 개인화된 전기차 시스템이 담당하고 도시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도시 내 거점을 연결하는 LRT(Light Rail Transit)를 이용해 목적지 근처로 이동하고 거점과 목적지를 이동할 때는 PRT를 활용한다.

③ 친환경적인 도시 미관, 마스다르 시티

- 에코빌딩은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소재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건설과정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을 4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건물과 건물을 좁게 배치해 그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바람으로 냉방을 하고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무더운 도시 온도를 조절한다.
-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45m 높이 윈드타워는 자연 친화적 통풍기술이 있는데 더운 바람을 가뒀다가 물을 분사해 식힌 뒤 도심으로 순환시켜 도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탄소제로, 사회안전 등 중점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공통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문제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마스다르시티가 실현되도록 기여한 기술과 자본의 융합 전략을 깊이 연구하고 성공적 선형사례로서 적극 검토 및 응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스다르시티는 선진국에서 상용화 완료 또는 실험이

끝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기술융합의 용광로 속에서 전혀 새로운 기술들을 그룹 의사결정체계에 지속적으로 상용화시키고 있다. 도시건설 자체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하여 미래상품을 만들어내는 아부다비 지도자들의 전략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탄소중립 정책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지방정부에서도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다르 시티가 현실적으로 탄소제로 도시로 운영되고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획도시로서의 시도는 높이 평가한다.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방향으로 재해석해 시도할 가치가 있다.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도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은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청주 오창·오송, 충주, 진천·음성 혁신도시 등 계획도시 설계시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을 중심으로 마스다르 시티의 전략에 공감하고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도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움직이는 도시들이 있다. 강원도 인제군은 2045년까지 7,900억원을 들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안산시, 삼척시, 수원시 등 각 도시들도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있다. 청주산업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창, 옥산, 오송에도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정돼 저탄소화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내 11개 시군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4) 관련 사진



4. 현지시찰 방문지역

1) 알 시프 지구, 알파히디 역사지구 / 수크 마디나트 주메이라

- 알 시프 지구와 알파히디 역사지구는 두바이의 오래된 전통마을로, 원래 '바스타키아'라고 불렸다. 19세기 중반부터 1970년까지 사용된 60여 개의 전통 건물들을 보존하여 박물관, 카페, 상점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수크 마디나트 주메이라는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것으로 카펫, 조명등, 장신구 등 1,000년 전통문양의 기념품을 그대로 재현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 전통건물의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와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도시재생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 두바이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도시나 지역에서도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시설로 재생하는데 좋은 사례로 평가한다.

2) 알세르칼 예비뉴

- 알세르칼 예비뉴는 원래 도시 외곽에 있던 후미진 공장 단지였으나, 2007년부터 예술가들이 삭막한 컨테이너 물류 창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개의 갤러리가 모여 작은 창고 블록으로 시작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도심 속 예술허브로 발전하여 예술, 미식,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버려진 공장·창고와 같은 고유한 건물이 도시 내에서 새로운 삶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재생 사례는 도시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예술과 문화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향상시키며,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 버려진 공간이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잠재력이 있는 공간을 찾아 새로운 문화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삶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사료된다.

3)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은 아부다비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프랑스로부터 '루브르' 이름 사용허가를 받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건축 총면적이 24,000㎡이며 상설 전시실 면적은 6,000㎡, 특별 전시실 면적은 2,000㎡로 4개의 전시동에 총 12개의 상설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은 아부다비가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지역과 국제적인 관객들에게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부다비가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모범 사례로 사료된다.

4) 관련 사진



